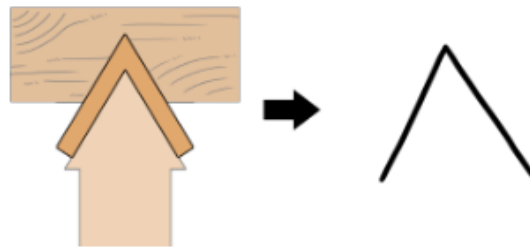


지사문자①



入

들 입

入자는 '들다'나 '빠지다', '간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동안은 入자를 사람이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해석했었다. 사람을 뜻하는 人(사람 인)자를 반대로 그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入자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뾰족한 삼각형을 入 그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무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入자가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나무를 끼워 맞추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형태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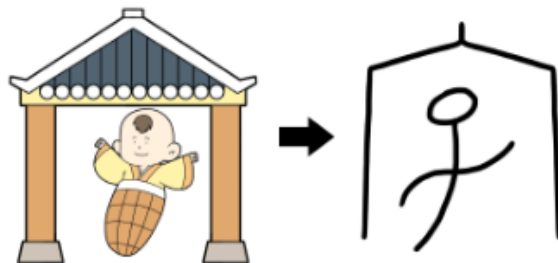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字

글자 자

字자는 '글자'나 '문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字자는 宀(집 면)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지붕을 그린 것이기에 집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집을 뜻하는 宀자에 子자가 결합한 字자는 '집에서 아이를 기른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字자에 아직도 '기르다'나 '양육하다'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시황 때부터 字자를 '글자'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문자(文字)'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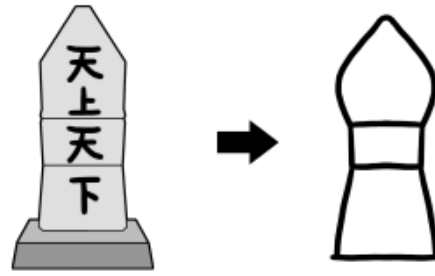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祖

할아버지  
/조상  
조

祖자는 '조상'이나 '할아버지', '시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祖자는 示(보일 시)자와 且(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且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까지만 하더라도 且자가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且자가 다른 여러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示자를 더한 祖자가 '조상'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祖자는 선대를 뜻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근본'이나 '시조'와 같이 한 집안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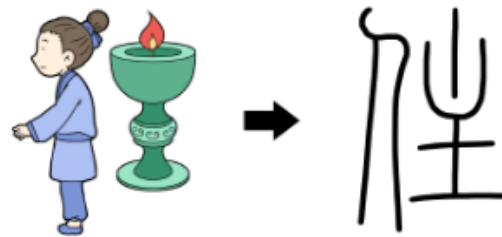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住

살 주

住자는 '살다'나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住자는 人(사람 인)자와 主(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방안을 밝히던 촛대를 그린 것이다. 빈집에는 방안을 밝힐 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러니 住자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기에 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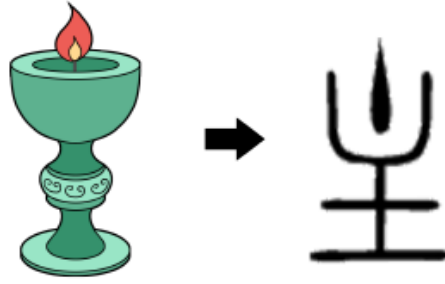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主

임금/  
주인  
주

主자는 '주인'이나 '주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主자는 王(임금 왕)자에 丶(점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본래 촛대를 그린 것이었다. 소전에 나온 主자를 보면 긴 촛대 위에 심지가 主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主자의 본래 의미는 '심지'였다. 그러나 후에 主자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불 화)자를 더한 炷(심지 주)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한 집안을 밝혀야 할 사람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主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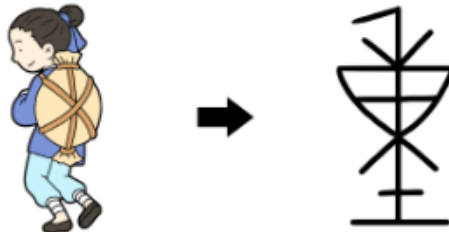
主

소전

主

해서

회의문자①



重

무거울  
중

重자는 '무겁다'나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重자는 里(마을 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마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重자는 東(동녘 동)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東자는 본래 끈으로 사방을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이다. 금문에 나온 重자를 보면 人자 아래로 東자가 重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등에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重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보따리에는 곡식의 씨앗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重자에는 '소중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重

금문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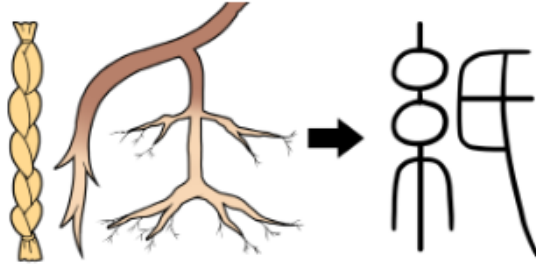
소전

重

해서

7  
-  
37

# 형성문자①



紙

종이 지

紙자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紙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氏(성씨 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氏자는 나무뿌리가 땅속으로 뻗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씨→지'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대나무를 갈라 글을 썼다. 이것을 죽간(竹簡)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인 천이나 비단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紙라고 했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천 조각이 '종이'라는 개념으로 쓰였으니 糸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것이다.

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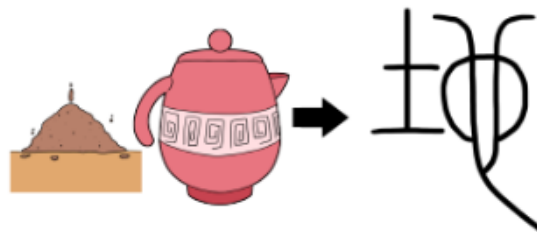
소전

紙

해서

7  
-  
38

# 회의문자①



地

따(땅)  
지

地자는 '땅'이나 '대지',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地자는 土(흙 토)자와 也(어조사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也자는 주전자를 그린 것이다. 地자는 이렇게 물을 담는 주전자를 그린 也자에 土자를 결합한 것으로 흙과 물이 있는 '땅'을 표현하고 있다. 地자는 잡초가 무성한 곳에서는 뱀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지(土)와 뱀(也)'을 함께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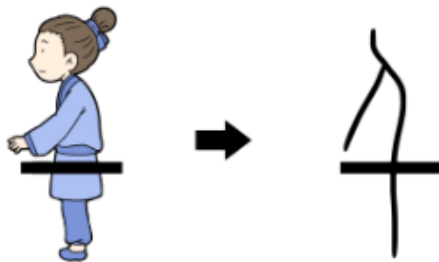
地

소전

地

해서

지사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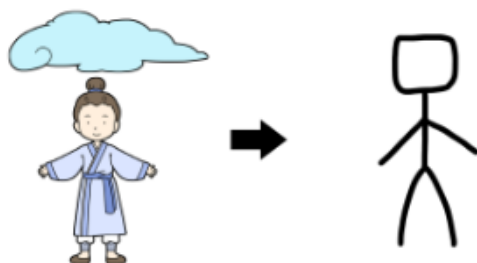
千

일천 천

千자는 숫자 '일천'을 뜻하는 글자이다. 千자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千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을 뜻하는 人(사람 인)자의 다리 부분에 획이 하나 ㄣ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일천'이라는 뜻이다. 고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천' 단위의 수를 표기했다. 예를 들면 '이천'일 경우에는 두 개의 획을 ㄣ 그었고 '삼천'은 세 개의 ㄣ 획을 긋는 식으로 오천까지의 ㄣ 수를 표기했다. 千자는 그 중 숫자 '일천'을 뜻한다. 후에 천 단위를 표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千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쓰이지 않는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天

하늘 천

天자는 '하늘'이나 '하느님', '천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天자는 大(큰 대)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天자를 보면 大자 위로 동그란 모양이 囗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天자는 사람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하늘'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단순히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